

'재밌고 맛있고 저렴한' 광주 관광 여기 있어요

해설이 있는 도심관광트레일

김현승·허백련 등 명사 발자취
오월길·K-POP길 총 5코스

매주 토·일 오후 2시 무료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주 명사(名士)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아름다운 사립길 '도심관광트레일'이 매주 토·일요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운영된다.

광주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위해 도심관광트레일을 운영, 문화전당을 찾은 관광객들이 광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걸으면서 도시를 즐

길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 속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5개의 테마 길을 만들었다.

도심관광트레일 5개 코스 프로그램 ▲1코스 (문학)김현승의 플라타너스길/문화전당-동명동카페거리-양림동-사직공원 ▲2코스 (그림)허백련의 예술유람길/문화전당-예술의거리-대인시장-의재미술관 ▲3코스 (음악)정율성의 음악산책길/문화전당-정율성생가-오월기념각-정음성거리 ▲4코스 (대중문화)K-POP 아이돌 골목길/문화전당-학생회관뒷골목-K-POP홀로그래프극장 ▲5코스 (인권)민주열사의 오월길/문화전당5·18민주광장-상무관-5·18기록관 등이다.

정기투어는 12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영되며 오후 2시부터 문화전당 앞 5·18 시계탑에서 접수하며 5명 이상이 되면 도심관광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일 투어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도시여행청에 문의, 접수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도심관광해설사와 함께 도심관광을 즐길 수 있다. 각 코스별로 2~3시간이 소요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류미수 관광진흥과장은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도심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심관광트레일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스탬프투어 참가 땀 다양한 혜택

문화전당·대인야시장 등 명소
방문 도장 모으면 영화관 할인

29일~5월 14일 봄 여행주간

2017 봄 여행주간(4월29일~5월14일)을 맞아 광주 관광을 백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행 붐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광주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광주시는 이번 여행주간을 계기로 광주시민들이 안내 주요 관광지를 가

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한번 이상 방문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관광협회, CGV와 협력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야시장,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CGV 영화관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키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현대캐피탈을 펼친다.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행사장과 대인 예술야시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대중 밀집 장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광주관광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특히, '재밌고 맛있고 저렴한' 광주관광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 봄 여행주간에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시티투어버스와 훈이오빠 자전거,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미디어홀로그램전용극장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 자치구가 추천한 맛집, 숙박업소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할인 내용은 여행주간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반값 아동 간병' 크라우드 펀딩 나섰다

아동보호사 협동조합 지원

광주 광산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 간병 서비스를 '반값'에 이용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다.

목표 금액은 300만원이며,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회사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광산구가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전문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봐주는 것이 핵심이다.

일과 가사 이중 부담을 짚어온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안심하고 환자를 맡

길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다. 또 이 서비스가 뿌리내리면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병원과 함께 아동보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아동보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엄마손길'을 설립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성한 기금을 '엄마손길'에 지원해 '반값' 간병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것이 광산구의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기금은 소진할 때까지 현재 이용 금액의 절반인 시간당 60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인다.

현재 광산구의 아동보호사 교육을 수료한 주민은 모두 32명. 이들 중 일부가 아동 병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아동 192명을 1300시간 동안 돌봐왔다.

이번 모금은 순수 기부형이며, 오마이컴퍼니에 접속해 '엄마 손길'을 검색하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6개 회사에 총 95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 공익 충족 등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효과를 낳는 새로운 경제"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광주시는 최근 대로변,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학교 주변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9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청년 교통비 지원
구직 900명에 30만원씩

광주시가 이르면 7월부터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청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청년도시광주TF 회의를 열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카드에 적립해주는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이다.

2015년 광주시가 실시한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 준비기간이 평균 25.7개월로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에게 가중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20대 청년들의 생활비 가운데 교통비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사용 목적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미취업 청년이고, 1인당 월 6만원씩 5개월 총 3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9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장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모여 광주시 교통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수당 방식의 청년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구중천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년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 부채, 주거환경 등 청년복지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문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유일 7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북구가 행정자치부의 '2017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8), 도(9), 시(74), 군(83), 자치구(69)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재정 신속집행 실적 ▲민간 집행 실적 ▲예산액 규모 등 3개 항목에 대해 올해 3월말까지의 실적을 정량 평가했다.

북구는 목표액 492억 원 중 87.13%인 429억 원을 집행해 전국 자치구 최우수를

차지, 재정인센티브 6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전국 최우수를 차지, 재정 인센티브로 27억6000만원을 받아 주민복리에 재투자하게 됐다.

이는 북구가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해 신속집행을 집중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신속집행 상황실을 운영해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체계

적인 관리, 집행을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집행절차 간소화와 원활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 내실을 기한 것이 7년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서민생활 밀착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784,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통급 500평,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